

가천대 길병원 아이바람클리닉

“임신성공률 국내 최고 수준...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 보듬어”

▼ 아이바람클리닉 입구.





가천대 길병원 아이바람클리닉 전승주 교수(산부인과).

합계출산율이 지난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

출산율은 지난 2012년 1.3명,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으로 조금 증가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 1.74명보다 낮은 상황이다.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최근 난임(불임) 부부의 증가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난임으로 진단된 인구는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약 20만명(여성 16만1000명, 남성 4만9000명)에 이르렀다. 성별로는 남성이 2004년 2만2166명에서 2014년 4만8704명으로 10년새 2배 이상 늘었고 여성은 같은 기간 10만 4699명에서 16만615명으로 65% 증가했다.

난임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초혼 연령의 증가, 출산 연령 노령화, 스트레스 및 유해 환경 호르몬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주요 발병 원인으로는 음주, 흡연, 고도비만, 저체중 등이 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임신성공률 달성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 아이바람클리닉 전승주 교수는 난임 부부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2016년 체외수정술 임신성공률을 64.10%(혈액 검사 기준)로 높였다.

이 같은 성적은 지난 2015년의 동결배아이식 성공률 61.5%보다 높은 수치이다. 지난 2014년 53.57% 보다는 무려 10% 이상 높은 수치이다.

최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에 따른 2010년도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체외수정시술 2만 4448건의 임신 성공률은 31.1%였다.

전승주 교수는 “아이바람클리닉은 대학병원이라는 특성 상 내원하는 환자군의 평균 나이가 39.5세임을 감안할 때 동결배아이식의 성공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전국 체외수정술 임신성공률 평균을 상회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난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한참 때의 가임기 여성들에게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30~40대의 난임 진료 인원이 크게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30~34세는 2008년 1827명에서 2012년 2160명으로 증가했다. 35~39세는 814명에서 1295명으로 역시 대폭 늘었다.

전 교수는 “난임 치료 중 난자 채취는 여성에게 막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고, 여성들은 그로 인한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환자들의 임신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천대 길병원의 난임 치료에 대한 관심은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길병원은 난임이라는 용어가 생소하던 과거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이 미국 유학 후 개원한 ‘이길여 산부인과’ 때부터 난임에 관심을 가졌고, 박애, 봉사, 애국의 미션 하에 여성의 몸과 마음 모두를 치료하고 있다.

동결배아이식술, 프리모비전으로 성공률 극대화

아이바람클리닉은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으로 시험관아기 임신성공률을 64%까지 높였다.

1번의 난자 채취 과정만으로 충분한 배아이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배란 반응이 저조해 채취된 난자수가 적을 때도 채취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환자의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유도한다.

아이바람클리닉은 시험관아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동결배아이식술을 도입했다. 동결배아이식이란 체외에서 수정된 배아를 배양해 동결,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기간 후 냉동된 배아를 해동시켜 자궁내막에 이식을 해주는 방법이다.

난소를 자극시키기 위해 맞은 호르몬 주사에 의한 자궁내막변형을 최소화하고, 정상 임신과 같은 내막의 환경으로 만든 상태에서 배아이식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배아이식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배아를 5일간 배양해 동결 및 이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3일 배아 신선이식을 할 때보다 더 건강한 배아를 이식함으로써 더 높은 임신율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아이바람클리닉은 지난 2013년 국내 최초로 배아모니터링시스템인 프리모비전을 도입했다. 프리모비전은 수정된 배아의 발달 과정을 배양기 내에서 24시간 관찰하면서 하루 종일 배아를

5~60분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성장과정이 컴퓨터로 분석돼 정상적인 발달을 보이는 배아를 우선적으로 선별, 이를 이식에 사용함으로써 임신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이바람클리닉은 국내최초의 동결배아이식 전문병원으로서 임신을 위한 치료 과정도 차별화했다. 기존의 체외수정술은 배란 유도 후 초음파로 난자를 채취하고, 미세수정술등을 사용하여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킨 뒤 건강한 배아를 선별 후 바로 이식에 사용하는 신선배아이식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때, 많은 숫자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배란 유도제는 여성의 에스트로젠 호르몬 농도를 몇 배 내지 수십 배 이상으로 높게 되고, 그에 따른 변화된 자궁의 착상환경이 임신율을 저하시키게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이바람클리닉은 수정이 된 배아를 필요에 따라 공배양술, 배아모니터링시스템, 보조부화술, PGS(착상전유전자검사)등과 같은 최신보조생식기법을 적용하여 배양하고, 배아 발달의 최종 상태인 포배기 배아로 성장시킨 후 선별된 건강한 배아를 여성에게 바로 이식하지 않고 동결 보존한다.

전승주 교수는 “다른 병원에서 수차례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 임신에 실패한 환자들과 여성의 나이가 평균 39세로 40 대가 많은 길병원의 환자들에게서 높은 임신률을 달성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